

#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

---

\*일시 \_ 2008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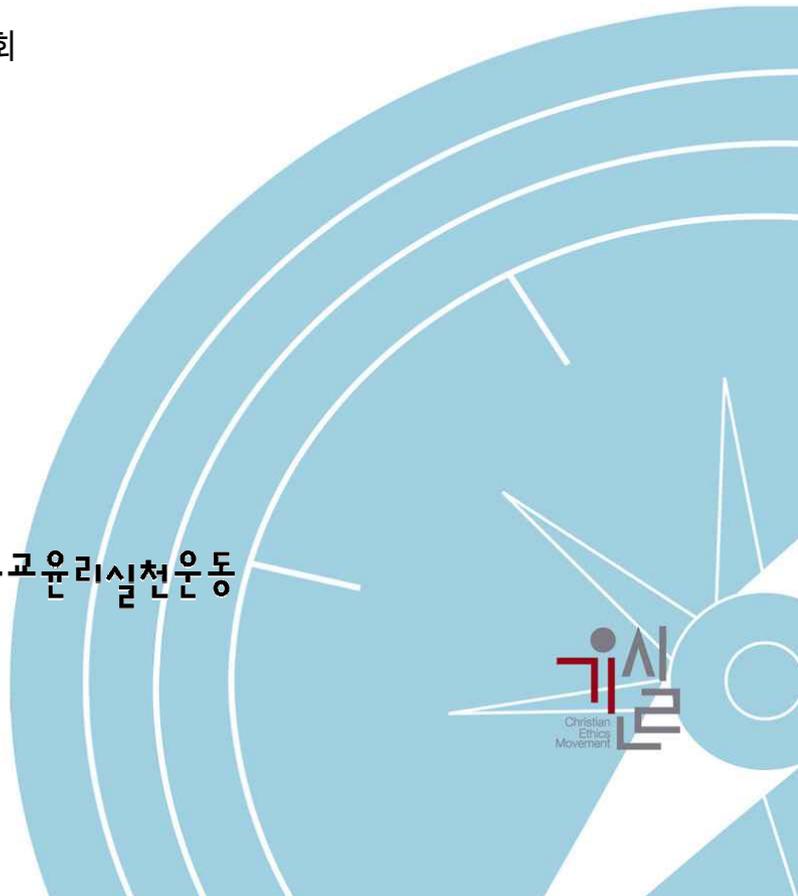
\*장소 \_ 명동 청어람 5실

\*주최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

\*후원 \_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바른교회아카데미,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이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연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증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공청회 이후 10월 초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결과발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목차/ 순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

- 사 회 : 양 세 진 사무총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 1부. 주제발제

-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김 병 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책임연구원) 4

## 2부. 지정토론

- ①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11
- ② 신 창 운 기자(중앙일보 여론조사전문) 14
- ③ 조 현 기자(한겨레신문 종교전문) 16
- ④ 김 청 사무국장(한국기독교총연합회) 18
- ⑤ 황 필 규 국장(NCCK 정의평화국) 20

## 3부. 전체토론

# 주제 발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정회

김 병 연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책임연구원

##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1. 설문조사의 취지와 목적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바른교회아카데미,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이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10월 세계 국가투명성지수를 발표하는 것과 같이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발표하여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의 추이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여론조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윤실에서 2007년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발한 '한국교회신뢰지표'가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본 여론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둘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 교회신뢰도 측정은 단순히 지수를 통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즉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의 일반 시민의 교회신뢰도 조사 결과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신뢰도 수준뿐만 아니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나 활동들을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의 신뢰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기윤실의 '한국교회신뢰지표'를 토대로 한 개별 교회 수준에서 신뢰도 제고 노력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호 점검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증가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국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이다. 한국 교회와 교인이 일반인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나 제도가 되려는 노력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보다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그 결과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호감 혹은 신뢰도가 증가하고 이는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의 선진화이다. 선진사회는 소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도가 높은 사회이다. 그리고 신뢰수준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교회에서 비롯되는 신뢰도의 증가는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도 제고 노력을 촉발할 수 있는 기폭제, 혹은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사회적 신뢰도 측정에 관한 문헌

### World Values Survey

사회적 신뢰도 조사의 가장 오래되었고 중요한 문헌으로서는 세계 가치관 조사 (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를 들 수 있다.<sup>1)</sup> WVS는 1981에서 2004년까지 4차례의 사이클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1982년, 1990년, 1996년, 2001년 4번의 조사에 모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기초로 측정된 사회적 자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낮게 평가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인을 대할 때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라는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WVS의 조사를 근간으로 한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김태중(2007)은 2001년 한국의 사회 신뢰 수준(0.27)은 조사대상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덴마크(0.64) 및 선진국 그룹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다.<sup>2)</sup>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 저하속도는 빠르다고 분석한다.

표1: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 추이

시 기	I (81-84)	II (89-93)	III (94-99)	IV (99-04)	IV- I
신뢰 지수	0.36 (13/21)	0.34 (16/43)	0.30 (13/54)	0.27 (27/70)	- 0.09

출처: 김태중 (2007),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국제적 비교", KDI 국제정책대학원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WVS 사이클에서 상위로부터 한국의 순위이며 마지막 열의 숫자는 조사 기간 중 최근 - 최초 사이의 증감정도를 나타냄

1) World Values Survey는 미국 미시간 대학의 Th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간 프로젝트이다. 지금까지 1981~1984, 1990~1993, 1996~1997, 그리고 1999~2001에 걸쳐 총 네 번의 조사가 있었으며, 각각의 기간 동안 21, 43, 53, 70개 국가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국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80%를 차지한다.

2) 김태중 (2007),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국제적 비교", KDI 국제정책대학원

신뢰의 대상을 중심으로 신뢰를 구분하면 타인에 대한 일반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눌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generalized trust)가 타인이 나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할 위험 부담(risk)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confidence in institutions)는 제도나 기관이 공평무사하고 일관되게 운영되어 내가 그로부터 피해를 입을 취약성(vulnerability)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sup>3)</sup> WVS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 법원, 정당, 언론, 대학, 대기업, 교회 등에 대한 신뢰정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왔다.

### 제도의 신뢰에 관한 한국 문헌들

국내의 여러 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신뢰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WVS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한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을 측정해 왔으며 2001년에는 한림과학원에서 주관하여 사회적 신뢰조사가 실시되었다. 한림과학원은 '한국사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로 묻은 결과, 신뢰지수는 평균 4.13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한국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면접조사를 통해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신뢰도는 5.51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 대학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2006년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기한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0점에서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 신뢰의 수준은 평균 4.8으로 약간 하락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신뢰 대상을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시켰을 때 시민단체, 대학, 대기업, 종교단체 순으로 민간부문에 속한 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신뢰를 받았고, 국회, 정부, 사법부, 대통령 등 공공부문이 불신을 받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언론이, 공공부문에선 국회의 신뢰 순위가 가장 낮았다. 예를 들면 상기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 대학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제도에 대한 신뢰를 살펴볼 때 교육기관(5.44), 시민단체(5.41), 언론(4.91) 순으로 높은 신뢰를 받았고 국회(2.95), 정당(3.31), 정부(3.35)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았다.

최향섭(2006)은 6대 광역시 8개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전문기관 나우앰퓨터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사회적 신뢰를 조사한 바 있다.<sup>4)</sup> 최향섭은 한국의 주요 사회 기관에 대한 제도적 신뢰 정도를 능력에 대한 신뢰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의 두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20개의 주요 공적·사적기관에 대해 5점 척도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 '대기업'(3.78)에 다니는 사람의 업무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뒤는 '중소기업'(3.41), '의료계'(3.33), '금융기관'(3.31)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자원봉사단체'(3.39)이며, 금융기관(3.06) 중소기업(3.05) 순이었다. 종교계는 업무능력 평가에서 20개의 기관 중 16번째이며, 도덕성 평가에서는 13번째로, 업무 능력 (2.61)에 비해 도덕성(2.73)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 한준(2006),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국제비교",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p.32

4) 최향섭,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IT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06.12

동아시아연구원(EAI)도 2005년부터 기업, 정부, 정당, 사법기관, 노동조합,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 한국의 각 영역의 대표기관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2008년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0점부터 10점까지 11점 척도의 영향력과 신뢰도 평가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82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이 영향력과 신뢰도 양 쪽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결과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대기업에 이어 높은 수준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가진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데 반해 낮은 신뢰도를 보여 그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민주당, 뉴라이트, 민노당, 자유선진당의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가장 불신 받는 조직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08년 7월 MBC가 갤럽에 의뢰하여 11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면접 조사하여 측정한 결과, 군대(57.7%), 시민단체(55.3%)가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국회(12.6), 정부(23.9)가 가장 불신 받는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

Putnam (1993)<sup>5)</sup>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 연결망(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 등과 같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해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된다. 기존의 문헌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거래에서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시장거래의 제약 요인이 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게 하므로 집단적 효율성(collective efficiency)을 증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Knack과 Keefer (1997)은 World Values Survey (WVS) 지수를 이용하여 사회자본인 ‘신뢰’와 ‘시민사회 규범’<sup>6)</sup>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7)</sup> 그는 1980-1992년 동안 신뢰와 시민사회의 규범의 변화가 1인당 연평균 GDP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2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10%의 신뢰지수 증가는 약 0.8%의 1인당 GDP의 성장에 기여함을 밝히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로서 투자를 들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이 물적 자본 축적에 강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점에서 Knack과 Keefer(1997)는 ‘시민사회규범’의 10% 증가가 8.8%의 투자 증가를 유발함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Zak과 Knack(2001) 역시 신뢰가 낮은 환경에서는 경제성장에 주요 요소인 물적 자본의 축적이 감소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sup>8)</sup>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의 감소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을

5)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6) “대중교통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탈세”, “주는 돈을 갖는 것” 등등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시민 사회의 규범을 측정하였다.

7)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No. 4: pp 1251-1288.

8) Zak, Paul J., and Stephen Knack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Vol. 111, Issue 470: pp. 295-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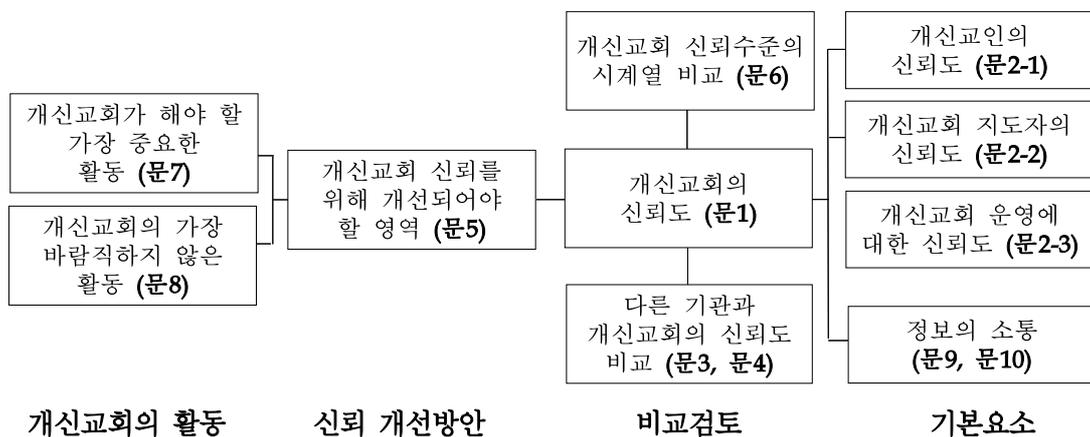
통해 간접적으로 후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네트워크나 공동체 등에 속하므로 얻어지는 소속감, 정체성 등의 사회적 보상(social reward)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과 개인의 후생 증진에 필수적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 3. 설문 문항 작성의 원칙

설문 문항의 작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객관적인 신뢰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수치화할 수 있는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즉 신뢰지수는 수치로 표현되어 횡단면(예: 다른 기관과의 비교)으로나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복수 문항들이 존재하여 응답내용들이 cross-check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설문의 보기들은 가능한 한 배타적이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설문의 보기들은 응답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답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의 구성 요소로 개신교인, 개신교회 지도자, 그리고 개신교회의 운영으로 이해하고 한국 교회의 전체 신뢰도 측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별 구성 요소에 의한 신뢰도 측정도 의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다른 조직 혹은 제도와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신뢰도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교회의 신뢰도가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 아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 여부와 개신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채널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교회의 신뢰도가 소통의 문제인지 실제 교회에 관한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문의 문항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설문의 구조





질 문	비고사항
<p><b>문5.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신)교회의 누구, 혹은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회의 운영 (예를 들면 교회의 투명성, 부정부패의 감소)</li> <li>2) 교회 지도자들 (예를 들면 사회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li> <li>3) 교인들 (예를 들면 교인들의 높은 도덕수준)</li> <li>4) 교회의 활동 (예를 들면 사회봉사, 사회정의실현)</li> </ol>	<p>개신교회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기본 요인을 개신교회 운영과 활동 개신교인, 개신교회 지도자들에서 찾았다.</p>
<p><b>문6. 당신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할 때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정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더 신뢰하게 되었다</li> <li>2) 동일하다</li> <li>3) 더 불신하게 되었다.</li> </ol>	<p>시계열적 추세를 보기 위한 문항이다. 문1을 통해 얻어진 작년의 결과와 비교하여 신뢰지수의 추세에 대한 정확성을 비교 검토(cross check) 할 수 있다.</p>
<p><b>문7.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신)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도 및 선교활동</li> <li>2) 사회봉사 및 구제 활동</li> <li>3) 사회 정의 실현</li> <li>4) 교육 활동</li> </ol>	
<p><b>문8. 교회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호화로운 교회당 건축</li> <li>2) 목회자 세습</li> <li>3) 목회자 소득세 무신고</li> <li>4) 무리한 전도 및 선교 활동</li> <li>5) 교회가 야기하는 교통 및 주거 환경 문제 (예를 들면 소음, 주차 문제)</li> </ol>	
<p><b>문9. 당신은 한국 (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우 관심이 있다</li> <li>2) 대체로 관심이 있다</li> <li>3) 별로 관심이 없다</li> <li>4) 전혀 관심이 없다</li> </ol>	<p>교회에 대한 불신이 실제적인 교회에 대한 문제인지 단지 소통의 문제에서 오는지를 문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p><b>문10. 당신은 (교인의 경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이외의) 교회 (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알게 됩니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자 등을 통하여 안다</li> <li>2) TV,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안다</li> <li>3) 가족, 친구나 이웃을 통해 안다.</li> <li>4)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통해 안다</li> </ol>	<p>만약 개신교회에 대한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면 어느 방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문10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얻을 수 있다.</p>

# 지정 토론 1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운실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쁨과 함께 감사의 찬사를 보낸다. 한국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조사들이 미천한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한국교회의 발전과 건강성 제고에 큰 밑바탕이 되리라고 믿는다. 특히 이러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며 그 변화되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희망을 가져보게 된다.

그간 한국사회 속에서 개신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많은 글들이 써져왔고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객관화된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가정들에 근거된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질 것으로 본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여론조사의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좀 더 발전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토론을 위한 개인적 의견들을 내어 본다.

## 01.

설문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쓴 글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한국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이고 둘째는 한국사회의 선진화이다. 이 두 가지 서술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장'이나 '선진화'라는 단어가 주는 왜곡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다른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교회성장주의가 주었던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처음 지적하였던 효과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제시된 교회를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넓은 시각을 열어주는 시도라고 본다.

## 02. 설문문항에 대해서

1문항: '당신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하는 질문이 첫 질문으로 너무 단도직입적이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있다. 신뢰라는 단어에서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신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선이해가 없는 것이 좀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어떤 분야에서 신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질문을 이끌기 위해서, 혹 이것인 공적인 의미에서의 한국교회의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면 '개신교회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개신교회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2문항: 개인, 목사, 조직에 대한 분류를 하여 질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정책설정이나 방향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문항: 교회와 다른 기관들을 일대일로 질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특히 문항 숫자가 제한되는 전화설문에서 다섯 개의 중복되는 질문이 주는 영향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 5문항: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본다.

6문항: 작년과 비교하는 질문인데 작년 이맘때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라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때라 이러한 비교가 적절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이러한 조사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진행된다고 소개가 되었는데 매년 이러한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7문항: 3번 예에서 '사회정의실현'이라는 표현이 한국사회에서 이미 일정 정도의 이념적, 실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가 추상적 수준이라는 생각이 좀 든다. 또 두 개의 응답을 요구한 문항인데 보기가 적은 것 같다. 추가한다면 구체적으로 정치적 활동, 시민사회단체 참여 등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요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회교육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에 비교하여 현실에 대해서도 질문해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현재 교회가 치중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문항: 추가하고픈 것들, 변화되지 않는 주변의 그리스도인, 정치적 활동,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무관심 ..

9, 10문항: 아주 의미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한다.

추가하여 생각한다면 응답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가 빠져 있는데 추가되어져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고 각자의 종교에 따른 비교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회가 참여할만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본다면 시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전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교회신뢰지표’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된다면 발전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존재는 세상 안에서 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영성 충만한 폐쇄되어진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무너져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이제 그 바닥이 어디인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교회는 혁명적 변화가 아니고서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조사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

# 지정 토론 2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

신창운 기자

중앙일보 여론조사전문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나아가 교회의 신뢰성 제고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됨.

질문내용의 적합성, 조사 시기, 조사결과의 책임성 등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질문지로 판단됨.

## < 의견 및 토론 >

전반적인 신뢰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선 하나의 지표가 필요할 텐데 '단순 지표'(문 1)와 '복합 지표'(문 2)가 동시에 산출되고 있음. 단순 지표는 경제학 쪽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모르겠음(가령, 신뢰 60 - 불신 40 = 20일 경우, 교회 신뢰도 20%). 또 만약 두 지표가 상충될 경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

복합 지표(문 2)의 경우 교인, 목사, 운영 세 가지 하위질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교회의 신뢰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태도 및 행동 질문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떤가 (예, 이웃으로 사귀고 싶다, 말씀에 믿음이 간다, 한국 교회는 배타적이다)

'교회와 다른 조직(제도)과의 상호 비교'는 얼마나 필요한가. 질문량에 한계가 있겠지만 5개 조직(제도)과의 비교로 충분한가. 또 구체성이 부족해 응답자마다 생각하는 조직(제도)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Gallup 신뢰도 지표 조사처럼 각 조직(제도)의 주체를 비교하는 것도 방법. 가령, 목사, 신부, 스님, 국회의원, 판사 검사, 기자, 시민운동가 등

‘신뢰도 제고 결정요인’(문 5), ‘신뢰도 제고활동’(문 7), ‘신뢰도 제고 방해요인’(문 8)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신뢰도 제고 결정요인은 문 2)와도 중복되고 있으며, 응답항목의 경우 ‘Who’ 2개와 ‘What’ 2개가 섞여 있음. 신뢰도 제고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Social Desirability)’ 묻는 것은 아닌가 (‘사회봉사 및 구제 활동’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

‘작년과 비교한 교회 신뢰도’(문 6)와 ‘교회에 대한 관심’(문 9)은 전체 질문 축소 차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 특히 ‘작년과 비교한 교회 신뢰도’는 향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면 추세 파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질문

## < 권고 및 결론 >

복합 측정치를 통해 교회 신뢰도 지표 구성해야 하며,  
이 경우 상관관계, 요인분석, 회귀분석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홍두승,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2000): 131~157 참고)

공청회 이후 질문지에 대한 추가적 심층적 검토 필요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더 & 반드시)

조사의 일관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조사기관 역시 최소 3~4년 유지돼야

인구통계학적 질문(Demographics)이 빠져 있는데...  
특히 신자와 비신자 응답자의 의견 차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조사결과의 활용 : 교회 신뢰도 관련 학문적 성과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  
목표 수치 제시 및 피드백, 정기적인 조사 실시 및 홍보

한국 교회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노력 :  
희생과 봉사, 공동 노력(특히 홍보 차원에서), 믿음과 이성의 조화 등

# 지정 토론 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

조현 기자

한겨레신문 종교전문

이번 신뢰도 조사 목적은 한국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과 한국사회의 선진화라고 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교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10년마다 조사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05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10년간 우리나라 종교인구는 237만 3천명이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219만명이 가톨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에 비해 가톨릭 신자는 4.3% 늘어났다. 반면 불교 신자는 0.4% 줄었고, 개신교는 1.4% 줄었다. 주요 종교 가운데 개신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초고속성장을 했던 개신교의 성장세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체 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게 이런 신뢰도 조사를 통해 신뢰를 제고하려는 이유일 것이다.

당신 인구 센서스의 종교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장 주목 받는 것은 '호감도'에 대한 분석이었다. 결국 한 사람이 특정 종교를 선택하기까지는 선택 전에 그 종교에 대한 호감을 갖지 않고서는 그 종교를 선택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열성적인 선교에 의해 개신교가 양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사람들이 다양화하고, 자기 소신이 강해지면서 개인적 호감이 없이 다른 사람의 권유만으로 특정 종교를 선택하는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이미 개신교 신자보다도 비신자쪽의 호감도를 조사해야 그 목적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량 개신교에 대해 당신이 호감을 가진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냐는 질문에 따라

1. 목회자를 비롯한 개신교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2. 열성적으로 선교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3. 정치와 사회참여를 할 때. 4.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것을 볼 때.

또는 개신교에 대해 당신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다면, 그 계기는 무엇인가?

1. 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현수막을 들거나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2. 목회자의 비리를 알았을 때. 3. 목회자 세습을 목도했을 때. 4. 교회 건물이 크거나 화려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비신자들로부터 어떤 점이 호감을 얻고, 어떤 점이 비호감의 이유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정 토론 4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

김 청 사무국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A. 개요

- (1) 사회적으로 비판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함.
- (2) 그러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짐.
  - ① 포괄적으로 종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비교적 개관적인 입장이 될 수 있으나, 특정 종교에 대한 여론 조사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진 종교에 따라 주관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임.
  - ② 즉, 개별 종교에 대한 신뢰도 설문에는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배타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임. 따라서 응답자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를 파악해서 비교 분석을 해야 할 것임.
  - ③ 더구나 설문마저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우려가 더 큼.
- (3) 한국교회에 대한 개념 내지 범위 설정이 모호함
  - ①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나? 교회들에 대한 신뢰도나?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도나? 불분명함.
  - ② 교회 안에서 지향하는 교회의 활동과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교회의 활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 ③ 개념과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설문도 그에 따른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임.

## B. 설문

<문 1> 추가 / 5) 생각해 보지 않았다.

<문 3> 어느 기관 / 개 교회에 대한 설문인가? 기관(교단, 연합기관)에 대한 설문인가?

<문 4> 종교기관 / <문 3>과 동일

3) 불교 / 교회에 대한 설문이라면, '사찰' 또는 '절'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문 5> 설문 자체가 추상이고 적절하지 않음. <문 8>과 중복

1) 교회의 운영 / '투명성'은 이해가 되나 '부정부패'를 넣는 것은 문제가 있음.

4) 교회의 활동 / '전도와 선교활동의 방법'이 빠져 있음.

<문 6> 추가 / 4) 잘 모르겠다.

<문 7> 보기가 제한적임.

<문 8> <문 5>와 중복, <문 7>은 외부활동에 <문 8>은 내부문제에 국한하고 있음.

<문 9> 교회의 활동 / 무슨 활동? / 실제적인 문제인지 소통의 문제인지 파악 의문?

이 설문은 수정하여 <문 1>이나 <문 2>의 위치로 가야 맞음.

(예) 당신은 한국 (개신)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C. 소통

(1)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함.

① 교회의 지향점과 일반시민의 요구점이 다름.

②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우월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점을 비판하는 입장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청렴해 보이고, 비판을 당하는 국회와 정당과 정부는 신뢰도가 열등하게 보일 수밖에 없음.

③ 최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종교계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반면, 이에 대한 반론이나 긍정적인 면은 소통되지 않고 있음.

④ 일반언론매체(TV, 신문, 인터넷신문)는 종교계의 긍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거나 종교성을 핑계로 외면하고 부정적인 것은 확대 부각시킴.

(2) 발제자의 관점도 교회의 지향점과 다름.

① 발제자는 "한국교회와 교인이 일반인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나 제도가 되려는 노력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를 질적 성장으로 보고 있고,

②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호감 혹은 신뢰도가 증가"가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했음.

③ 일리는 있으나, 교회가 일반인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나 제도가 되려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님.

(3) 이번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한국교회의 신뢰도의 현주소 파악을 통해, 소통의 활발성과 다양성의 모색하고 교회와 일반시민 간의 인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교회의 자정과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고양에 기여하기를 바람.

# 지정 토론 5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

황 필 규 국장  
NCCK 정의평화국

## 01.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회신뢰도’를 조사하기까지 이른 오늘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 의식 속에서 믿음(신뢰)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귀하게 평가합니다.

## 02.

설문조사의 취지와 목적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증가함으로써 1) 한국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과 2)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제시하고 있는 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종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지? 기독교인과 일반 비신자 간에 이에 대한 공감감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없어 혼돈스럽습니다.

## 03.

이번 여론 조사가 전화로 이루어지는데, 10문항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을 얻어내는데, 다른 방법(직접조사, 우편조사)에 비해 오차가 크지는 않을지 의문시 됨. 예를 들면, 전화상 시간 문제 즉, 말하고, 듣고, 답하기에서 오는 정확도 문제. 보완책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함.

## 04.

설문 문항 내용에서는

- 문 2의 3)에서 ...‘교회운영’...은 ‘교회운영기관/단체’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의미전달이라고 봄
- 문 4에 보기에서 ‘4) 기타’ 추가 요함. 왜냐면, 원불교 등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 문 5에 보기에서 ‘5) 기타’ 추가요함, 왜냐면 ‘교리 등’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 문 7에 보기 3)‘사회정의 실현’은 ‘사회정의 관련 활동’으로 동일 표기요함
- 문 8에 보기 ‘6) 기타’ 혹은, ‘6) 교회의 무리한 토지소유 확장’ 추가요함. 또는 보기 4)에 내용 추가.

## 05.

빠진 문항 보다 내용으로는 1) 교회의 '신뢰'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2) 어떻게 해야 교회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지 등.

## 06.

여론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문5, 문7, 문8의 결과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추후에 한다면, 실질적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 07.

한국교회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는

- Global standard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church standard(율법이 아니라)를 상식적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써, 교회의 신앙적 지도자(목사, 장로, 권사 등)들의 삶/생활에 대한 모범, 그리고 이와 연결된 교회 운영, 교회 치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신앙 공동체성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사회신뢰  
회복운동  
①②③

회원실천  
운동  
⑦⑧

2008  
9대  
핵심사업

교회신뢰  
회복운동  
④⑤⑥

협력운동 ⑨

- ①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 ② 기독교와 삶의정치 컨퍼런스
- ③ 창의여성리더십 아카데미
- ④ 신뢰회복캠페인(교회내·외부 신뢰도 측정, 저작권)
- ⑤ 교회재정투명화운동 ⑥ 목회자리더십포럼
- ⑦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 만들기 30일 묵상교재 발간 및 묵상나눔 모임 ⑧ 기윤실 목요 포럼
- ⑨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나눔 운동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김동호(불은뜻송의교회 담임목사), 김일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운동본부장 | 기독교윤리연구소 | 노영상(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정직신뢰성증진운동본부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 | 김선욱(송실대 철학과 교수),

생활신앙실천운동본부 |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 김은혜(송실대 교양학부 교수), 목회자리더십포럼 | 황영익(서울남교회 담임목사) 사무총장 | 양세진

전화 | 02-794-6200 팩스 | 02-790-8585 이메일 | cernk@hanmail.net 홈페이지 | www.cernk.org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한국교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서포터스가 되겠습니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교회가 윤리성과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 성도와 한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고자 기윤실이 2007년 조직한 단체입니다. 신뢰성 증진을 돕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컨설팅,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임파워먼트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회와 성도가 우리사회의 신뢰성 증진을 주도해 나가도록 섬겨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운동 소개

### 1. 한국교회신뢰지표

신뢰성 제고가 교회의 건전성 확립 및 교회발전에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신뢰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그에 의한 신뢰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 ① 한국교회신뢰지표 보급(설문조사 및 특별강연)
- ②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또는 매뉴얼 보급(비전과리더십, 조직운영, 사회적책임, 성도의삶)
- ③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일반시민대상)\_2008년 하반기



### 2. 교회 저작권 운동

- ① 저작권 인식개선운동(교회저작권 가이드북)\_무료 배포중
- ② 저작권 이용편의운동(공개SW활용 매뉴얼, 저렴한 SW가격 정책 유도 등)

### 3. 재정투명화운동

- ① 교회재정운영 규정 가이드북 발간
- ② 목회자 세금 납부 지원운동
- ③ 교회재정 종합매뉴얼 발간\_2008년 하반기

## 공동대표



왼쪽부터 김동호 목사(높은뜻승의교회)  
박은조 목사(분당샘물교회)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위한 공청회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 02-794-6200

팩스 | 02-790-8585

이메일 |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홈페이지 | [www.cemk.org](http://www.cemk.org)

